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2. Vol. 21, No. 2, 413-428

사회적 문제 해결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최 이 순†

연산정신병원

본 연구는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고 입증된 SPSI의 개정판 SPSI-R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5개의 요인구조가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400명이 SPSI-R과 PSI에 응답했다. 검사의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PSI와의 관계도 유의한 상관을 보여서 검사의 타당함을 밝혔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어 5요인 모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문제해결 과정에 있어서 성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ICS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연구 결과 5요인 모델의 적합성 의미와 임상적 결함평가 및 치료평가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주요어 : 사회적 문제해결, 문제지향과정, 문제해결기술과정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해결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자들은 인간을 적극적인 문제해결자로 보고 심리적 적응이 문제해결의 숙달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일찍이 Jahoda(1953, 1958)는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은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였으며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은 부적합한 심리적응과 정신병리와 연관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이 인간의 심리적 행복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처전략이다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가 축적되어 왔다(D'Zurilla, 1986; Nezu & D'Zurilla, 1989; Nezu, Nezu & Perri, 1989).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 이 순 / 부산시 연제구 연산 6동 산 50번지 연산 정신병원 임상심리과 / E-mail : mind625@hanmail.net

이 영역의 많은 연구에서 D'Zurilla와 Goldfried (1971)가 처음 개발한 사회적 문제해결모델이 기초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란 적응적인 기능이 요구되지만 여러 가지 장애들로 인해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일상의 상황들을 나타내며, 해결은 문제시되는 상황의 본질과 그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반응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 해결이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상황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며 또한 이것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문제해결을 해나간다는 면에서 바로 "사회적인 상황"을 강조한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들이 실험실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당시로서는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실제생활에서 문제해결 능력과 문제해결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임상집단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파악하여 치료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정확한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여야 효과적이고 치료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여러 연구들(Chaney, O'Leary & Marlatt, 1978; Jones & Lanyon, 1981; Platt & Spivack, 1972)이 임상집단에서 사회적 적응 능력을 파악하는 도구들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가 1970년대 이후 주의를 끄는 가운데 개인의 실생활 문제해결 과정의 국면들을 측정할 도구가 개발되었다. 1970년대에는 주로 Platt와 Spivack(1975)가 개발한 수단-목적 문제해결 절차(Mean-Ends Problem Solving: MEPS)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문제해결 과정에 대해서 이렇다 할 측정도구가 없었다. 그러나 MEPS는 문제해결 결함이 지각의 결여인지, 태도의 결여인지, 기술의 결여인지에 대한 구분을 분명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의 연구들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Heppner와 Peterson(1982)이 제작한 문제해결 질문지 (Problem Solving Inventory: PSI)가 주로 사용되었다. PSI는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영역은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평가하며, 두 번째 영역은 접근-회피유형을, 세 번째 영역은 개인적인 통제감을 평가한다. 이 평가도구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쓰여졌으나 사회적 문제해결의 이론적 근거보다는 경험적으로 유도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Sadowski & Kelley, 1993). 이후 D'Zurilla와 Nezu(1990)는 그들의 사회적 문제해결 모델에 기초하여 사회적 문제해결 질문지(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SPSI)를 제작하였다.

SPSI는 Heppner(1988)의 PSI의 세 척도(문제해결 자신감, 문제에 대한 접근-회피 양식, 개인적 통제 요인)와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어 이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입증했다. 최근 PSI를 SPSI와 통합하는 연구에서 Elliot와 Sherwin, Harkins 및 Marnlarosh(1995)은 개인적 통제(Personal Control: PC)와 문제해결 자신감(Problem Solving Confidence: PSC)은 사회적 문제해결 모델의 문제지향 요소와 일치한다고 하였고, 접근-회피 양식(Approach-Avoidance: AAS)은 사회적 문제해결 모델 중 문제해결 기술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D'Zurilla와 Nezu(1982)의 모델은 사회적 문제해결 과정을 문제지향(problem solving orientation)과 문제해결 기술(specific problem solving skill)인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지향은 문제해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동기요소로서 한 개인이 문제상황에 처음 직면했을 때 보이게 되는 즉각적인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반응들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신념, 가정, 평가 및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기

대 등을 말한다. 그리고 그 개인의 전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 문제해결 과정의 구성요소를 이룬다. 문제해결기술은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성하며, 대안적인 해결책을 산출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대처기술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D'Zurilla와 Nezu(1990)가 제작한 SPSI는 70개의 Likert 유형의 항목들로 이루어졌으며 두 개의 주된 구성요소(문제지향과 문제해결기술)를 평가하기 위한 자기 보고식 측정도구이다. SPSI는 사회적 문제해결의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SPSI점수는 학업성적, 내적 통제소제, 심적 스트레스, 병적 증상의 심도, 개인적 문제, 우울과 불안 등과 관련이 많으며 문제해결 훈련효과를 민감하게 파악해 낼 수 있는 좋은 도구임을 여러 연구에서 시사하고 있다(D'Zurilla & Nezu, 1990; D'Zurila & Sheedy, 1991, 1992; Kant, 1992).

우리 나라에서도 90년대부터 임상집단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SPSI를 사용하여 문제해결 과정을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김영미와 김중술, 1992; 이미정, 1993; 최이순, 손명자 및 진복수, 1998). 최이순 등(1998)은 SPSI를 가지고 정상인, 정신분열병과 우울증 환자 사이에 문제해결 능력을 알아본 결과 임상집단이 정상인에 비해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해결에서 결함을 보였으며 문제해결 지향과정과 문제해결기술과정 모두에서 결함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그 하부과정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정신분열병 환자에 비해 인지척도, 문제규정척도, 구성화척도 그리고 의사결정 척도들에서 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SPSI의 구조는 일차적으로 이론에서 유도된 것으로서 경험적인 증거를 이용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D`Zurilla & Maydeu-Olivares, 1995; Maydeu-Olivares & D`Zurilla, 1996; Sadowski, Moore, & Kelley, 1994). 사회적 문제해결의 더 나은 임상적 평가와 연구를 위해 SPSI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Maydeu-Olivares와 D'Zurilla(1996)는 성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기존의 구조로 2개의 주요인과 7개의 하위요인인 위계적 모형으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을 밝혔다. 즉, 문제지향과정의 정서와 인지요인간 상관이 너무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해결기술과정의 4요인간 상관 또한 너무 높았는데 이는 문항들이 개념적으로 명확한 구분 없이 뒤섞여 있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시 새로운 구성요소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5요인의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임을 보이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2요인 이론을 지지하지만 5요인에 대한 대안적인 구성개념을 시사하고 있으며 건설적인 차원과 역기능적인 차원으로도 분류되어질 수 있다. 5개의 구성요소의 내용들을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요소인 긍정적인 문제지향(Positive Problem Orientation: 이하 PPO로 언급)은 건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문제를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두 번째 요소인 부정적인 문제지향(Negative Problem Orientation: 이하 NPO로 언급)은 역기능적인 인지-정서와 관련된다. 즉, 문제를 행복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스스로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 번째의 합리적인 문제해결(Rational Problem Solving: 이하 RPS로 언급)요소는 건설적인 문제해결 패턴으로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체

계적이며 기술적인 작용을 한다. 네 번째 요소로서 충동/부주의 스타일(Impulsive/Careless Style: 이하 ICS로 언급)은 역기능적인 문제해결 패턴이며 문제해결 전략과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도를 한다. 하지만 한정적이며 충동적이고 신중하지 못하고 서두르고 불완전한 시도가 된다. 마지막 요소인 회피스타일(Avoidance Coping Style: 이하 ACS로 언급)은 역기능적인 문제해결 패턴으로 해결을 미루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며 문제가 생기면 직면하기보다는 문제를 피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문제해결을 미룬다.

Sadowski, Moore와 Kelley(1994)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SPSI의 요인구조를 확인적 요인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 Maydeu-Olivares와 D'Zurilla(1996)가 보고한 5요인 모델을 지지했다. 또한 5요인 모델을 이용하여 정상 청소년과 임상 청소년 집단을 사용하여 도구의 내적 일치도와 타당도를 밝혔다. 정서적으로 혼란된 청소년이 정상 청소년보다 PPO, RPS의 점수가 낮은 반면 NPO, ICS, AS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함으로서 검사도구의 실용성을 입증했다. Maydeu-Olivares 등(2000)은 SPSI-R(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미국인과 스페인 사람들 간에 5개의 요인모델간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ICS를 제외한 모든 차원이 집단간에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D'Zurilla와 Maydeu-Olivaries 및 Kant(1998)은 최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서 성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는데, 미국 대학생의 경우 NPO, PPO, ICS에서 성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Maydeu-Olivares와 Rodriguez-Fornells, Gomez-Benito 및 D'Zurilla(2000)의 연구에서 스페인 대학생들은 단지 NPO에서 남·여 간의 성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 및 치료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해결과정(문제해결 지향과정과 문제해결기술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SPSI-R이 타당하고 유용한 사회적 문제해결 도구임이 밝혀지고 있다(Chang & D`Zurilla, 1996; Maydeu-Olivares & D`Zurilla, 1996; McMurran, Egan, Richardson & Ahmadi, 1999).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사회적 문제해결 측정도구를 위해 Maydeu-Olivares와 D'Zurilla(1996)가 개정한 문제해결 도구(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SPSI-R)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검사도구의 실용성을 파악하여 임상집단에서 사회적 문제해결 과정을 평가하는데 민감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SPSI-R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그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5개의 요인으로 나누는 것이 적합한 지와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서 성 차이가 한국에서도 존재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대구지역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남·여 대학생 400명(남 160, 여 240)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의 평균연령은 20.00세(SD= 2.37)였다.

측정도구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 검사(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SPSI-R)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는 Maydeu-Olivares와 D'Zurilla(1996)가 개발한 SPSI-R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인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가지 작업으로 재번역 작업(back-translation method)을 엄격하게 실행하였다 즉 연구자가 한글로 번안한 SPSI-R의 번안 과정에는 재번역 절차를 사용하였다. 우선 양쪽 언어를 잘 구사하는 번역가가 영문 질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다른 번역가가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원 자료와 번역된 문항이 불일치한 경우는 다시 앞의 과정을 반복하여 두 질문지간에 어문적 차이(semantic difference)가 없을 때까지 반복하였다.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 척도는 전체 5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들은 아래와 같은 5개의 하위 척도로 나누어진다.

a. 긍정적 문제지향(Positive Problem Orientation: PPO, 5문항)

b. 부정적 문제지향(Negative Problem Orientation: NPO, 10문항)

c. 합리적인 문제해결(Rational Problem Solving: RPS, 20문항)

d. 충동-부주의 척도 (Impulsive - Carelessness Style:ICS, 10문항)

e. 회피척도(Avoidance Style: AS, 7문항)

이 척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전체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문제해결지수 =

$$\frac{PPO}{5}+\frac{RPS}{20}+\frac{(40-NPO)}{10}+\frac{(40-ICS)}{10}+\frac{(28-AS)}{7}$$

이렇게 얻어진 지수는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좋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제해결 검사 (Problem Solving Inventory: PSI)

문제해결 검사는 문제해결에 임하는 태도나 동기, 또는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검사로서 Heppner(1988)가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는 정홍섭(1990)에 의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검토된 바 있다(내적 합치도는 .93이었고, 재검사 신뢰도는 .91이었으며 준거관련 타당도 검사에서도 높은 상관값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검사에서는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접근-회피 양식, 자기통제의 세 가지 요인을 측정한다. 이를 더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문제해결 자신감은 문제해결 활동에 임할 때 느끼는 자기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감을 측정하는 것이다. 둘째, 접근-회피 양식은 문제해결 활동을 시도하거나 그 문제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 행동양식을 측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개인적 통제요인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에 대한 자기 통제력의 믿음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검사는 모두 36문항의 6점 척도로 구성되며 이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은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부적지각을 나타낸다.

절 차

SPSI-R(부록1)과 PSI를 대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질문지에 대한 반응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대상자 중 50명에게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측정을 위해 2주 뒤에 SPSI-R만 반복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익명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질문지 작성이 끝난 다음에는 질문지의 내용과 연구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SPSI-R 과 PSI의 상관을 계산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패키지는 SPSS이다.

또한 미국판과 스페인판에서 확인된 SPSI-R의 구조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Lisrel 8.03 (JÖreskog & SÖrbom, 1993)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신뢰도

SPSI-R의 개별문항이 단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값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으며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SPSI-R의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 α 값은 대부분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PPO의 경우 Cronbach α 값이 .63으로 다섯 개의 요인 중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이밖에 표 1에서 제시해 둔 바와 같이 미국판과 스페인판 SPSI-R에서도 PPO의 신뢰도 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척도의 신뢰도 계수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나타나 있듯이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전체 .90였고,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신뢰도 계수(α)

	PPO	NPO	RPS	ICS	AS
한국	.63	.83	.91	.79	.78
(미국)	.76	.91	.93	.84	.88
(스페인)	.68	.88	.92	.88	.90

( )안은 Maydeu-Olivares등(2000)의 결과임.

표 2. 검사 재검사 신뢰도

SPSI-R	PPO	NPO	RPS	ICS	AS
.90	.64	.75	.85	.89	.78

표 3. SPSI-R의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계수

	PPO	NPO	RPS	ICS	AS
한국의 피험자 (n=400)					
PPO	1.00				
NPO	-.33**	1.00			
RPS	.54**	-.17**	1.00		
ICS	-.19**	.39**	-.49**	1.00	
AS	-.26**	.68**	-.21**	.54**	1.00
x	11.93	14.48	41.34	12.09	8.63
SD	3.26	6.16	11.68	5.94	4.49
미국의 피험자 (N=924)					
PPO	1.00				
NPO	-.49**	1.00			
RPS	.61**	-.16**	1.00		
ICS	-.26**	.52**	-.37**	1.00	
AS	-.49**	.69**	-.26**	.59**	1.00
x	11.82	15.58	43.19	13.85	9.99
SD	3.92	9.22	13.66	7.12	6.69

** $p<.01$

* 미국의 피험자는 Maydeu-Olivares 등(2000)의 결과임.

타당도

척도의 하위 요인간 상관계수

SPSI-R의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해 두었다. 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하위요인 간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요인 간의 관계에 맞게 상관계수의 방향 역시 일치하였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미국판 자료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간 낮은 편이다. 그리고 NPO, AS, ICS는 PPO, RPS와 부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다. PPO와 RPS는 건설적인 차원(constructive dimension), NPO, ICS, AS는 역기능적 차원(dysfunctional dimension)과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공인타당도

SPSI-R 척도와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PSI)간의 상관을 산출하여 공인타당도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SPSI-R과 PSI 총점간의 상관계수는 $-.83(p<.001)$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표 4에서 보듯이 하위요인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본 결과 역시 상관의 정도와 방향에서 모두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AAS와 RPS의 상관이, $r= -.74(p<.01)$로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 PPO와 PC가 $r=-.23(p<.01)$로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 PSC는 PPO, NPO와 -.55, .61로 상관이 높고, PC는 NPO와 가장 상관이 높았다.

표 4. SPSI-R과 PSI의 상관관계

	PPO	NPO	RPS	ICS	AS
PSC	-.55**	.61**	-.45**	.49**	.33**
AAS	-.39**	.34**	-.74**	.39**	.67**
PC	-.23**	.55**	-.29**	.44**	.37**

*$p<.01$

확인적 요인분석

Maydeu-Olivares 등(1996)은 SPSI의 70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요인을 5요인으로 확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오는지를 적합도로 알아본 결과, 미국 판이나 스페인 판과 마찬가지로 한국판에서도 표 5와 같이 적합한 지수를 얻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사용하는 적합도 지수는 여러 개가 있으며 대부분의 적합도의 경우 그 값이 대개 0에서 1.0사이에 결정되며 값이 1.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지만 *RMSEA*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close fit)로 보아진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표 5에 나타나 있는 결과는 5요인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5의 결과 *RMSEA* = .05 로서 아주 좋은 적합도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판 척도에서 얻은 .05와 같고, 스페인판 척도에서 얻은 값인 .06보다 좋은 값이다.

또한 90%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신뢰구간에 해당하는 값을 추정해 본 결과 .047-.053의 값을

표 5. SPSI-R의 5요인 모델에 대한 RMSEA

	χ^2	df	RMSEA	신뢰구간(90%)
한국	2511.60	1264	.050	(.047;.053)
미국	4147.82	1264	.050	(.048;.052)
스페인	4807.17	1264	.060	(.057;.063)

주. N=777(스페인); N=924(미국인); N=400(한국인)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얻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5요인 모형을 다른 표본에 적용한 경우에 *RMSEA* 값이 .047-.053 사이에 있을 확률이 90%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증거를 고려해 볼 때 한국어판 역시 Maydeu-Olivares 등(1996)의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5요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을 얻은 것 중 요인 부하량이 낮게 나타난 문항은 19번, 20번 그리고 21번이었다. 그러나 이 문항들을 제거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요인 적합도에서 아무런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χ^2 검증은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고,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아서 동일한 모형이 표본크기에 따라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표에 χ^2 값은 참고로 제시하지만 의사결정에는 사용하지 않았다(홍세희, 2000).

성 차이

D'Zurilla 등(1998)은 사회적 문제해결 과정에 있어서 성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미국인은 PPO, NPO, ICS에서 차이를 발견했다.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 단지 NPO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ICS($t=3.61$, $p<.01$)에서 만 남·여 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여기서 평균 값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음을 나타냈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문제상황에서 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서두르는 반응스타일을 보인다는 것을 뜻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자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SPSI-R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번안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Maydeu-Olivares와 D'Zurilla(1996)가 밝힌 5 요인 모델이 우리 나라에서도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400명의 남·여 대학생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처리한 결과,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검사의 Cronbach α는 PPO, NPO, RPS, ICS, AS가 .63, .84, .91, .79 그리고 .7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Maydeu-Olivares 등(200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이 검사가 비교적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적 합치도와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개인적 특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을 시사한다.

SPSI-R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각 요인 간 관계에 맞게 상관계수의 방향 역시 일치하였다. SPSI-R은 SPSI를 요인분석하여 만든 것이나 SPSI는 실제로 두 개의 다른 차원, 즉 문제지향 차원과 문제해결기술 차원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은 있으나 SPSI-R은 2개의 문제지향 차원(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과 3개의 독립적인 문제해결기술 차원(합리적인 문제해결, 충동-부주의 스타일, 회피스타일), 이렇게 5개의 차원을 측정하는 5개의 척도로 구성요소를 개념화하고 있다. SPSI 중 문제해결기술 차원에서 평가되었던 4개의 하위척도는 상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비록 요인분석에서 묶이지는 않았으나 SPSI-R의 RPS에 해당된다.

SPSI-R 중 NPO, AS, ICS는 역기능적인 차원(dysfunctional dismention)과 관련이 있고 PPO, RPS는 건설적인 차원(constructive dismention)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두 차원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Maydeu-Olivare 등(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타당한 검사도구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판 사회적 문제해결 검사

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SPSI와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많이 사용해 온 PSI와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AAS와 RPS는 r =-.74 라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 PSC는 PPO 와 NPO에서 상관이 높았고, PG는 NPO와 가장 상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PSI를 사회적 문제해결 모델과 통합하는 연구에서 개인적 통제(Personal Control; PC)와 문제해결 자신감(Problem Solving Confidence: PSC)은 SPSI-R의 문제지향요소와 일치한다고 밝혔고, 접근-회피 양식(Approach-Avoidance: AAS)은 문제해결 기술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Elliott, Sherwin, Harkins, & Marmarosh, 1995). 따라서 한국판 SPSI-R은 공인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하겠다.

5요인 모델이 한국에서도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에서는 5요인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적합도 결과는 미국이나 스페인의 원자료가 없어서 문화적인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대체로 Maydeu-Olivares 등(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Maydeu-Olivares와 D'Zurilla(1996)의 연구와 달리 19번, 20번, 21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낮게 나왔다. 이들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요인 적합도에서 아무런 변화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내용을 보면 "가능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로 PPO, "문제에 대해 창의적이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RPS,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처음 떠오른 좋은 생각을 따른다"는 ICS에 해당되었다. 이들 3문항이 적합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원문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그냥 사용하였다.

그러나 문화권의 비교를 한 연구(Maydeu-Olivares, Rodriguez-Fornells, Gomez-Benito & D'Zurilla, 2000)에서 스페인과 미국 대학생간의 요인구조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ICS에서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다. 스페인 대학생의 경우 ICS 항목들(문항 3, 22, 34번)의 요인 부하량이 낮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낮은 요인 부하량을 보인 문항들은 특정 요인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몇 몇 문항들이 문화적인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스페인 사람들이 미국인에 비해 합리적인 검토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충동적이고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즉 미국인이 스페인 사람보다 문제상황에서 더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유추되지만 우리 문화권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따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 과정의 5요인 중 긍정적인 문제지향과 부정적인 문제지향은 사회적 문제해결 모델의 지향과정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문제해결을 향한 전반적인 동기요소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문제지향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김영미, 김중술, 1992; 김영미, 오경자, 1995; 이미정, 1993; 최이순, 손명자, 진복수, 1998; Nezu, Nezu & Perry, 1989). SPSI-R의 긍정적인 문제지향과 부정적인 문제지향은 서로 관련은 있으나 독립적인 두 차원, 즉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으로 인식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단일 차원의 양극단이 아니라 각각이 다르게 작용하는 다차원적인 인지과정으로 보고 있다(Bandura, 1977; Lazarus & Folkman, 1984). 또한 지향과정은 문제해결능력이 순간적인 정서상태보다는 좀더 지속적이고 내재적인 정서상태와 연관이 있음을 말한다.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개인적 통제력과 같은 문제지향 변인들은

문제해결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Hepper, 1988; Hepper & Petersen, 1982). 한편 문제해결기술은 분명한 행동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때 문제해결을 피하려는 반응 스타일은 알콜 문제나 수동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다(Godshall & Elliott, 1997).

문제해결의 결함을 파악한 후 어느 과정에서 결함이 있는지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 도구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향후 임상 집단간의 문제해결 과정의 차이를 비교 검토함이 절실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서 성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D'Zurilla, Maydeu-Olivaries & Kant, 1998; Maydeu-Olivares, Rodriguez- Fornells, Gomez-Benito & D'Zurilla, 2000) 미국인은 NPO, ICS, AS에서 차이가 있었고, 스페인은 NPO에서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스페인 둘 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부정적인 문제지향을 나타내어서 문제를 도전으로 보기보다는 위협으로 보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어 판을 이용한 경우는 ICS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문제상황에서 더 충동적이고 부주의한 반응스타일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란 일상생활에 노출되었을 때 문제자체와 세상에 대한 정보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문제해결 능력은 성 차이에 따라 다른 과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문제해결 능력이 같다고 하더라도 성 차이에 따라 그 과정은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유추되며 결함이 있을 경우 성 차이를 고려한 개입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을 문화적인 차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자료들이 부족하므로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모든 집단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른 연령에서도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SPSI-R이 문제해결 지각을 측정하는 것인지 실제적인 문제해결 기술을 측정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SPSI-R의 타당도, 신뢰도를 밝히고 확인요인분석을 하여서 한국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척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문항을 선정하거나 보완하여 우리 문화권에 맞는 사회적 문제해결 도구를 개발하고 그 구성요소들을 밝히는 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끝으로 임상집단 내에서 문제해결 과정의 결함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므로서 도구의 실용성을 확인하고 치료적인 개입 후 평가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참고문헌

김영미, 김중술 (1992). 우울증 환자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서울의대 정신의학, 17, 130-138.

김영미, 오경자 (1995). 대학생활 부적응 집단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95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이미정 (1993). 우울감이 사회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홍섭 (1990). 형식적 조작 이후 체계적-메타 체계적 인지발달단계의 타당성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최이순, 진복수, 손명자 (1998). 정신분열병과 우-

울증 환자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정신보건, 3(1), 78-87.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 161-178.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Chang, E. C., & D`Zurilla, T. J. (1996). Relations between problem orientation and ptimism, pessimism, and trait affectivity: A construct validation stud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4,* 185-195.

Chaney, E. F., O'Leary, M. R., & Marlatt, G. A. (1978). Skill training with alcoholic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092-1104.

D'Zurilla, T. J. (1986). *Problem solving therapy: a social competence approach to clinical interview.* New York: Springer.

D'Zurilla, T. J., & Goldfried, M. R. (1971). Problem solv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8,* 107-126.

D'Zurilla, T. J., & Maydeu-Olivaries, A. (1995).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social problem-solving assessment. *Behavior Therapy, 26,* 409-432.

D'Zurilla, T. J., Maydeu-Olivaries, A., & Kant, G. L. (1998).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problem solving in college students, middle age and elderly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ferences*, *25,* 241-252.

D'Zurilla, T. J., Nezu, A. M. (1982). Social problem-solving in adults. In P. C. Kendall(Ed.),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Vol. 1 (pp. 201-274). New York: Academic Press.

D'Zurilla, T. J., & Nezu, A. M.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 156-163.

D'Zurilla, T. J., & Sheedy, C. F. (1991). The relation between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subsequent level of psychological stres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841-846.

D'Zurilla, T. J., & Sheedy, C. F. (1992). The relation between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subsequent level of academic competence in college stud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589-599.

Elliott, T. R., Sherwin, E., Harkins, S., & Marmarosh, C. (1995). Self-appraised problem solving ability, affective stat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105-115.

Godshall, F. J., & Elliott, T. R. (1997). Behavioral correlates of self-appraised problem-solving ability: problem solving skills and health-compromising behavio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 929-944.

Heppner, P. P. (1988). *A manual for the problem-solving inventory.*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ists Press.

Heppner, P. P., & Petersen, C. H.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 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66-75.

Jahoda, I. L. (1953).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health. *Social Casework, 34,* 349-354.

Jahoda, I. L. (1958).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New York: Basic Books.

Jones, S., & Lanyon, R. I. (1981). Relationship between adaptive skills and outcome of alcoholism treatmen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2* , 521-525.

Jöreskog, K. G., & & Sörbom, D. (1993).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Kant, G. L. (1992). Problem solving as a moderate of stress-related depression and anxiety in older and middle-aged adul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1100, 5402 B. (University Microfilms No. 9309980).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 (1996). A factor-analytic study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an integration of theory and dat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 115-133.

Maydeu-Olivares, A., Rodriguez-Fornells, A., Gomez-Benito, J., & D'Zurilla, T. J. (200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panish adapt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revised (SPSI-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699-708.

McMurran, M., Egan, V., Richardson, C., & Ahmadi, S. (1999). Social problem solving in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brief report. *Criminal Behaviour & Mental Health, 9(4)* , 315-322.

Nezu, A. M., & D'Zurilla, T. J. (1989). Social problem solving and negative affective conditions. In P.C. Kendall & D. Watson(Eds.), *Anxiety and depressive: Distinctive and overlapping features (pp. 285-315).* New York: Academic Press.

Nezu, A. M., Nezu, C. M., & Perri, M. G. (1989). *Problem solving therapy for depression: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guideline.* New York: Wiley.

Platt, J. J., & Spivack, G. (1972). Social competence and effective problem solving in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 3-5.

Platt, J. J., & Spivack, G. (1975). Manual for the mean-ends problem solving procedures(MEPS): *A measure of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s*. Philadelphia: Hahnemann Community Mealth Health Retardation Center.

Sadowski, C., & Kelley, M. L. (1993). Social problem-solving in suicidal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21-127.

Sadowski, C., Moore, L. A., & Kelley, M. L. (199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SPSI) with normal and emotionally disturbe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 *22,* 487-500.

원 고 접 수 일 : 2001. 11. 2.
수정원고접수일 : 2002. 3. 11.
게 재 결 정 일 : 2002. 4. 1.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2. Vol. 21, No. 2, 413-428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SPSI-R)

Yi-Soon Choi

Yeonsan Mental Hospita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SPSI-R). Also this study seeks to confirm and compare 5 factor constructs in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revised. SPSI-R and PSI were administered to 400 college students. These revealed high internal consistency and high test-retest and concurrent validity.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5 construct factors of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revised.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ICS(impulsive/careless scale), as one of the five factors. Several discussions were made, analyzed about five construct factor.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 social problem solving, problem orientation process, problem-solving skill process

부 록

사회적 문제 해결 척도

지 시

다음에 나오는 글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들이란 당신 자신이나 혹은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예를 들면, 건강문제, 가족간의 불화, 혹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으시고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잘 생각하여 아래의 숫자들 중 하나를 골라서 표시하십시오. 요즘 생활하면서, 당신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개의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생각해 보신 후 해당번호에 V표를 하면 됩니다.

0; 전혀 그렇지 않다
1; 조금 그렇다
2; 보통이다
3; 매우 그렇다
4; 완전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	0	1	2	3	4
2.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0	1	2	3	4
3.	결정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을 조심스럽게 확인하지 않는다.	0	1	2	3	4
4.	결정을 할 때, 각 각의 해결책이 다른 해결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	0	1	2	3	4
5.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시켜 본다.	0	1	2	3	4
6.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 자신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한다.	0	1	2	3	4
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에는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0	1	2	3	4
8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맨 먼저 떠오른 생각대로 행동한다.	0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9	나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0	1	2	3	4
10.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해 보기 전에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지 보려고 기다린다	0	1	2	3	4
11.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한다.	0	1	2	3	4
1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을 때 ,나는 매우 좌절한다.	0	1	2	3	4
13.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해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의심스럽다.	0	1	2	3	4
14.	문제 해결을 가능한 한 뒤로 미룬다.	0	1	2	3	4
15.	어떤 해결책이 얼마나 잘 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	0	1	2	3	4
16.	문제 해결을 회피하기 위해 그 문제가 아닌 다른 일을 한다.	0	1	2	3	4
17.	어려운 문제들은 나를 아주 기가 죽게 만든다.	0	1	2	3	4
18.	결정을 할 때, 각 해결책의 앞뒤를 예측해 보려고 한다.	0	1	2	3	4
19.	가능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0	1	2	3	4
20.	문제에 대해, 창의적이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생각하려고 한다.	0	1	2	3	4
21.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맨 처음 떠오른 좋은 생각을 따른다.	0	1	2	3	4
22.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생각나지 않는다.	0	1	2	3	4
23.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회피한다.	0	1	2	3	4
24.	결정을 내릴 때, 각 해결책의 단기적인 결과와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한다.	0	1	2	3	4
25.	해결책을 쓰고 난 뒤에, 잘 되어 가는 것과 잘 못 되어가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확인을 한다.	0	1	2	3	4
26.	문제 해결을 해보고 나서, 나의 기분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알아보는 확인을 한다.	0	1	2	3	4
27.	해결 방법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 해결 방법을 연습해 본다.	0	1	2	3	4
28.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어려운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0	1	2	3	4
29.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사실을 모은다.	0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30.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문제 해결을 미룬다.	0	1	2	3	4
31.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0	1	2	3	4
32.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심란해서 생각을 분명하게 할 수가 없다.	0	1	2	3	4
33.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도록 목표를 먼저 세운다.	0	1	2	3	4
34.	결정을 할 때, 각각의 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내지 않는다.	0	1	2	3	4
35.	문제를 해결하기에 실패했을 때, 잘 못된 것을 찾아내고 나서 다시 시도한다.	0	1	2	3	4
36.	문제를 해결하기가 싫다	0	1	2	3	4
37.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문제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보기 위해 확인한다.	0	1	2	3	4
38.	나의 문제를 도전해 볼만한 것으로 보려고 한다.	0	1	2	3	4
39.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한다.	0	1	2	3	4
40.	결정을 할 때, 각 결정의 결과를 가늠해 본다.	0	1	2	3	4
41.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울해지고 아무 것도 못한다.	0	1	2	3	4
42.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간다.	0	1	2	3	4
43.	결정을 할 때, 각 해결책의 결과들이 나의 감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한다.	0	1	2	3	4
44.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이유가 될지도 모르는 것들을 나의 주위에서 찾는다.	0	1	2	3	4
45.	결정을 할 때,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감에 따라 한다.	0	1	2	3	4
46.	결정을 할 때,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게 도와 주는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0	1	2	3	4
47.	문제를 해결 할 때,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둔다.	0	1	2	3	4
48.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	0	1	2	3	4
49.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내려고 한다.	0	1	2	3	4
50.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노력이 실패했을 때, 힘이 빠지고 우울해진다.	0	1	2	3	4
51.	해결 방법이 왜 잘 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는 않는다.	0	1	2	3	4
52.	결정을 할 때, 마음이 너무 급해서 행동하기가 어렵다.	0	1	2	3	4